

LG는 강하다, KIA는 더 강하다

KIA, 후반기 첫판부터 빅매치

막강 화력 무장 연승행진 탄력 승차 별리고 선두 굳히기 호기 '가을야구' 바로미터 50승 '-2'



7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지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후반기 레이스 초입부터 다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인다.

KIA는 9일부터 재개되는 프로야구 가을야구의 운명을 가를 후반기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48승3패2무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KIA는 35경기차로 추격 중인 2위 LG와 이번주 잠실에서 1위 싸움을 가늠할 중요한 3연전을 치른다.

효성적을 거둘 경우 KIA는 선두자리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되는 반면, 연패시에는 사정권인 승차가 더욱 좁혀져 쫓기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6승3패로 앞선 KIA는 최대 무기인 화력을 앞세워 LG 마운드를 두들겨 승차를 벌릴 참이다.

KIA가 믿는 것은 역시 마운드보다는 10개 구단 최강을 자랑하는 타격이다.

나성범과 최형우, 소크라테스, 김도영이 버티고 있는 타선은 상·하위 구분없이 고른 응집력을 갖춰 리그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로야구 팀별 순위 (8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IA	48	33	2	0.593	0
2	LG	46	38	2	0.548	3.5
3	두산	46	39	2	0.541	4
4	삼성	44	39	2	0.530	5
5	SSG	41	42	1	0.494	8
6	NC	40	41	2	0.494	8
7	kt	38	45	2	0.458	11
8	롯데	35	42	3	0.455	11
9	한화	36	44	2	0.450	11.5
10	키움	35	46	0	0.432	13



김도영 나성범 최형우 <KIA 타이거즈제공>

특히 KIA타선은 올 시즌 LG 마운드를 상대로 매 경기 최소 10안타 이상을 기록할 만큼 매우 강하다. 질펀 지더라도 방망이가 조용할 날이 없었다.

마운드에선 원투펀치 양현종과 네일이 LG의 예봉을 무디게 할 태세고, 부상에서 빠진 정해영을 대신해 전상현과 최지민이 뒷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계획이다.

주말에는 홈으로 장소를 옮겨 5위 SSG와 맞대결을 펼친다.

올 시즌 SSG에게는 3승6패로 다소 열세다. 9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후반 피아폰 실책과 불펜 난조로 패한 경기가 5게임이나 된다.

이번 3연전도 추신수-최정-한유섭으로 이어지는 SSG의 강타선을 KIA 불펜진이 얼마나 잘 틀어막느냐가 승부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KIA는 2승만 보태면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50승 고지에 오른다.

시즌 50승 선착은 '가을야구'의 바로미터다. 역대 프로야구에서 전후기 리그로 진행된 1982-1988시즌과 양대 리그로 열린 1999-2000시즌을 제외하면 시즌 50승을 선착한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33차례 중 24번으로 72.7%나 된다.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도 33차례 중 20번으로 60.6%에 이른다.

KIA가 마지막으로 시즌 50승에 선착한 것은 지난 2017년으로 그해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패권을 가져갔다.

2024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KIA가 후반기 스타트를 산뜻하게 잘 끊고, 순항을 이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홍철기자

박종업 전남탁구협회 전무이사 탁구심판으로 파리올림픽 참가

박종업 전남탁구협회 전무이사(61)가 파리올림픽 탁구 종목 심판으로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는 8일 "박종업 전남탁구협회 전무이사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국내 유일 탁구 종목 심판을 맡는다"고 밝혔다.

담양 창평초-담양여중-경신여고에서 탁구선수로 활동했던 박종업 전무이사는 2010년 6월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했다.

박 이사는 세심한 판정과 공정한 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선보이며 2013년 제25회 러시아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전 주심을 비롯해 14년동안 전세계에서 열린 20여 개 대회 국제 심판으로 활동했다.

특히 박 이사는 심판으로서 갖춰야 할 절대 필수요소인 코트내에서의 뛰어난 판단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파리올림픽에 탁구심판으로 참가하는 박종업 전남탁구협회 전무이사. <전남도체육회 제공>

졌다. 박 이사는 "파리 올림픽에 심판으로 참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공정한 경기 운영을 통해 한국 탁구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NH농협은행 소프트테니스팀 빛고을 꿈나무 재능기부 훈훈

광주시체육회 감사패 전달

NH농협은행 스포츠단 소속 소프트테니스팀이 빛고을 소프트테니스 꿈나무 선수들에게 값진 추억을 선물했다.

광주시체육회는 8일 "NH농협은행 스포츠단 소속 소프트테니스팀이 신광중 체육관에서 각화초, 문화초, 상무초, 금호중, 신광중 등 5개교 50명의 꿈나무 선수를 대상으로 그룹 레슨 및 시범경기를 진행하고 훈련·경기 용품을 전달 후 사인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재능기부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문혜경 등 7명이 참가해 꿈나무 선수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사진)

농협은행 소프트테니스팀은 1989년에 창단해 60여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대표선수 4명을 보유한 국내 최정상팀이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문혜경이 개인전 금메달과 혼합복식 동메달, 이민선과 임진아



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꿈나무 선수들을 위해 스포츠 재능기부 행사를 개최해 준 장한섭 NH농협은행 스포츠단 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앞으로도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 NH농협은행 스포츠단이 서로 협력해 소프트테니스 유망주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 장애인육상 정지송, 한국 장애인육상 투척 종목 최초 패럴림픽 출전

"꿈 향한 도전, 후회없이 던지겠다"

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 소속 정지송(26세, 삼호개발)이 대한민국 장애인육상 최초 패럴림픽 투척종목에 출전한다.

정지송은 다음달 28일부터 열리는 파리패럴림픽 투포환던지기(F41)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정지송은 2017년 품아고 3학년 재학생 시절 지적장애로 장애인체육을 시작해 2년 뒤 장애인육상으로 전환, 2020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선수예에 발탁됐다.

2022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4위를 기록했고, 올해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목표 순위는 5위지만 입상권과 최고 기록이 30cm에 불과한 만큼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려 목표 그 이상의 도전에 나선다는 각오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육상전문체육지도자 이상준 감독, 박영식 코치의 장기적 안목과 전략

으로 정지송의 패럴림픽 출전을 지원했다.

이 감독과 박 코치는 체격이 다부지고, 힘이 좋은 정지송을 장애인육상으로 종목을 변경시키고 대한장애인육상연맹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국제대회에 출전 시켜 경험을 쌓게하는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에 정지송은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4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열린 2024 파리 그랑프리 장애인육상대회에서 11.07m로 개인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깜짝 은메달을 획득해 패럴림픽 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정지송은 "항상 곁에서 진심으로 조언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상준 감독님, 박영식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나의 장애인육상의 꿈을 담은 투포환을 파리에서 후회없이 던지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국 장애인육상은 이번 파리패럴림픽에 국가대표 3장을 획득했다.



한국 장애인육상 투척 종목 최초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정지송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이 쿼터로 정지송을 비롯해 경민재(트랙 100m, 200m F36)가 함께 파리에서 힘찬 도전을 펼친다. /박희중기자

53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제53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에페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해남군청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해남군청 펜싱, 5년 만에 우승 신고

회장배 전국남·녀종별대회, 에페 단체전 우승 합작

해남군청 펜싱팀이 제53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해남군청은 지난 7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전에서 강호 부산시청을 4대3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해남군청은 2019년 2월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와 9월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2관왕 이후 5년 만에 빛나는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국 최강을 확인한 해남군청은 올해 개최된 3차례 대회에서 모두 3위에 그친 아쉬움도 말끔히 털어내며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 '금빛 찌르기를' 예고했다.

권요민, 구영모, 황태현, 김승재가 팀을 이룬 해남군청은 8강전에서 국군체육부대를 만나 3대3으로 승리하며 지난 제62회 종별선수권에서의 패배를 시원하게 되갚았고, 준결승에서 경남도체육회(4대4승)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박희중기자